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99 (2026): 174-198
https://doi.org/10.24333/jkots.2026.32.1.174

#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

배정훈(장신대)

## 1. 서론

종말(eschatology)이란 말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으로 19세기 교의 신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정립된 이후, 인접 학문 분야로 사용된 용어이다.[1] 최근 구약학계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종말론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다. 포로기 이전의 예언적 종말론, 포로기 이후의 예언적 종말론, 그리고 묵시적 종말론이 그것이다. 이전에는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 간에 유사한 부분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포로기 이후 예언에 해당하는 원-묵시문학의[2]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

1 "eschatology" 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Th. C. Vriezen, "Prophecy and Eschatology," *VTSup* 1 (1953), 201. David L. Petersen, "Eschatology(OT)," *ABD* 2 (1992), 576. 랠프 스미스(Ralph L. Smith), 『구약신학: 그 역사, 방법론, 메시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5), 443-444.

2 원-묵시문학에 대해 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모빙켈(S. Mowinckel)은 제2이사야를 핵심으로 꼽았고, 플뢰거(O. Plöger)는 이사야 24-27장, 제3스가랴와 요엘

www.kci.go.kr

간의 차이점이 강조되었다. 말하자면, 원-묵시에서 나타나는 종말론은 이 땅에서의 회복을 뜻하는 '회복 종말론'이며, 죽음의 초월을 동반하는 '묵시적 종말론'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포로기 이후 나타난 예언적 종말론은 주전 2세기에 나타나는 묵시적 종말론과 다르다. 포로기 이후 예언적 종말론은 종말 이후에도 여전히 역사 안에서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반면, 묵시문학은 역사의 종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죽음 이후 개인의 심판과 부활, 영생 등의 주제를 다룬다는 면에서 명백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예언과 묵시에 관한 최신 연구 경향을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다. 다니엘 2장에서의 종말론이 다니엘 7-12장의 종말론으로 발전되었지만, 다니엘 2장의 종말론과 다니엘 7-12장의 종말론은 서로 다르다. 다니엘 2장에 나타난 종말론은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예언적 종말론에 해당하지만, 다니엘 7-12장에 나타나는 종말론은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묵시적 종말론이다. 다니엘 2장의 종말론은 죽음과 역사를 초월한 묵시적 종말론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 종말론에 해당한다. 특히 7-12장에 나오는 종말론의 변화는 7장과 12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연구는 2장에 나타나는 예언적 종말론, 그리고 7장과 12장에 나타나는 묵시적 종말론에 관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을 다르게 이해하는 예언과 묵시의 연구 동향을 돌아보고, 이어서 다니엘 2장에 나타나는 예언적 종말론과 다니엘 7장과 12장에 나타나는 묵시적 종말론을 확인함으

---

서를 꼽았다. 핸슨(Paul D. Hanson)은 제3이사야를 꼽은 반면, 쿡(Stephen L. Cook)은 에스겔 38-39장, 스가랴 1-8장, 요엘 2:1-11 그리고 3-4장을 꼽았다. Paul D. Hanson, "Apocalyptic Literature," in *The Hebrew Bible and Its Modern Interpreters*, eds. D. A. Knight and G. M. Tucker (Philadelphia: Fortress, 1985), 476-77.

www.kci.go.kr

로써 종말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2. 연구사: 예언과 묵시[3]

먼저 예언과 묵시의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일별하고자 한다. 벨하우젠(J. Wellhausen)은 예언을 이스라엘의 윤리적 사고의 절정이요 신약으로 가는 통로로 여기면서도, 묵시의 신학적 가치를 예언보다 열등한 예언의 모방(에피고넨/Epigonen)으로 불렀다.[4] 찰스(R. H. Charles)는 묵시문헌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언과 묵시를 연결하려고 노력하였다.[5] 로울리(H. H. Rowley)는 예언의 예언적인 요소와 묵시 현상의 영적인 요소를 연결하면서 묵시문학을 예언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6] 궁켈(H. Gunkel)과 그의 제자인 모빙켈(S. Mowinckel), 그리고 로울리와 러셀(D. S. Russell) 등은 묵시문학의 기원을 고대 근동의 문헌 또는 페르시아와 연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기원설을 넘어서서, 점차 묵시문학의 기

3 묵시문학에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아포칼립스(apocalypse)는 단지 문헌적인 장르로서 묵시문학으로 정의 된다. 2) 아포칼립틱 (apocalyptic)은 형용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명사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3) 아포칼립티즘(apocalypticism), 곧 묵시주의는 "초자연적인 계시, 천상의 세계, 종말론적인 심판 등을 포함하는 독특한 사유의 태도를 보여 주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J. J. Collins, "Apocalypse: The Morphology of a Genre," *Semeia* 14 (1979): 1-20. 배정훈,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에녹서와 다니엘서』 (한국학술정보, 2008), 110-111.

4 "에피고넨"이라는 말은 앞선 뛰어난 사상이나 문학, 예술 등을 추종하며, 모방에만 치중하는 사람, 즉 독창성이 결여된 모방자나 추종자를 경멸적으로 가리키는 표현로, 한국어로는 '아류'(亞流)로 번역할 수 있다. Paul D. Hanson, "Prolegomena to the Study of Jewish Apocalyptic," *in Magnalia Dei: The Mighty Acts of God*, eds. F. M. Cross, W. Lemke, and P. D. Miller, Jr. (Garden City, N.Y.: Doubleday, 1976), 422-425.

5 R. H. Charles, *The Doctrine of a Future Life in Israel, Judaism and Christianity* (London: A. & C. Black, 1913), 123, 387-390.

6 H. H. Rowley, *The Relevance of Apocalyptic: A Study of Christian and Jewish Apocalypse from Daniel to Revelation* (London: Lutterworth Press, 1964), 15, 16, 26.

www.kci.go.kr

원을 이스라엘 내부 전승에서 찾으려는 방향 전환이 나타났다.

이러한 방향에서 학자들은 예언과 묵시를 연결하는 예언서에 주목하였다.[7] 즉, 묵시적 종말론이 예언적 종말론에서 발전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종말론을 예언과 묵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이유는, 포로기 이후 예언이 당대의 사회적인 격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정경의 묵시문학인 다니엘서 또한 이러한 격동의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8] 예언과 묵시의 관계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학자들은 플뢰거(Otto Plöger)와 핸슨(Paul D. Hanson), 그리고 쿡(Stephen L. Cook)이다. 플뢰거는 이스라엘의 제2성전 시대에 묵시가 발전한 것은 신정정치로 변화된 사회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하시딤의 선조 되는 공동체가 원-묵시문학으로 불리는 이사야 24-27장, 스가랴 12-14장 그리고 요엘서를 통하여 예언에서 묵시문학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9] 핸슨은 박탈 이론을 적용하여 포로기 이후 시대를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의 갈등 역사로 이해한다.[10] 그는 묵시적인 개념들이 정치적 종교적 세력의 박탈 계급에 의

---

7 Paul D. Hanson, "Apocalyptic Literature," 476-77. 홍성혁, "요엘 4장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야훼의 시온 통치를 통한 새 세상 도래 부각," 「구약논단」 20권 (2014), 186-216. 이윤경, "4Q지침서(4Q415-418):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종말론적 지혜," 「구약논단」 30권 (2024), 209-239.

8 R. P. Carroll, *When Prophecy Failed: Cognitive Dissonance in the Prophetic Traditions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204-213. Paul L. Redditt, "Israel's Shepherds: Hope and Pessimism in Zechariah 9-14," *CBQ* 51 (1989): 640. Antonios Finitsis, *Visions and Eschatology: a Socio-Historical Analysis of Zechariah* 1-6 (New York: t&t Clark, c2011), 1-3. 이윤경, "탈식민 비평으로 읽는 다니엘서," 「구약논단」 31권 (2025), 342-371.

9 Otto Plöger, *Theocracy and Eschatology* (Richmond: John Knox, 1968). 116.

10 Stephen L. Cook, *Prophecy and Apocalypticism: The Postexilic Sett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2. Paul D. Hanson, *The Dawn of Apocalyp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232-233.

www.kci.go.kr

하여 조성됨을 강조한다.[11] 핸슨의 박탈 이론에 반대하여, 쿡은 부조화(dissonance)는 그룹들이 실제 박탈되거나 좌절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12] 그리하여 원-묵시적 본문들이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무시된 그룹의 작품만이 아니라, 유대의 회복 시기에 제사장 계열에 서 있는 그룹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주장한다(에스겔 38-39 장, 스가랴 1-8장, 요엘서).[13] 쿡의 결론은 묵시문학이 박탈 계급만이 아니라 지배자 그룹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세 학자의 연구가 제시하는 공통적인 결론은 박탈 계급이든지 지배계급이든지 포로기 이후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포로기 이후의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바지하지만, 그 차이가 나는 의미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의 차이점을 강조한 최근의 학자인 피니치스(Antonios Finitsis) 는 스가랴서 1-6장 연구를 통하여 포로기 이후의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였다.[14] 그는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의 예언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과 심판 이후에 살아남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체로서의 국가 회복을 기대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은 공동체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고, 종말에 악인이 제거되

---

11 이 결론은 막스 베버(Max Weber), 칼 만하임(Karl Mannheim) 그리고 에른스트 트뢸취(Ernst Troeltsch)에까지 소급되는 교회-종파 또는 이데올로기적-유토피아적인 모델로부터 주어진다.

12 Cook, *Prophecy and Apocalypticism*, 15, n. 53.

13 Cook, *Prophecy and Apocalypticism*, 2. Philip R. Davies, "Social World of Apocalyptic Writings," *The World of Ancient Israel: Sociological, Anthropolog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 ed. R. E. Clement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258.

14 Finitsis, *Visions and Eschatology*, 1-3.

www.kci.go.kr

고 의인이 '남은 자'로서 존속하는 새로운 세계를 기대한다.[15]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의 차이에 대하여 콜린스(J. J. Collins)는 "죽음의 초월"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했다. 전통적인 예언적 종말이 현세적(this-worldly) 회복과 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지만, 묵시적 종말은 죽음을 넘어선 초월적 차원에서의 궁극적 구원을 제시한다는 것이다.[16] 사실상 묵시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죽음의 초월 개념은 역사의 종말과 함께 시작된 부활, 천상의 세계, 우주적 심판, 역사의 종말 등 묵시문학의 포괄적 특징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염두에 두고 먼저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을 각각 살핀 후에 종말론의 발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 3. 다니엘 2장에 나타나는 예언적 종말론[17]

### 1) 2장의 꿈에 관한 바벨론 시대의 해석과 그리스 시대의 해석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또 왕이 보신즉"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환상(2:31-35)인데, 첫 번째는 네 개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2:31-33)이고, 두 번째는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 그 신상

15 Finitsis, *Visions and Eschatology*, 8-15.

16 J. J. Collins, *The Apocalyptic Imagination: An Introduction to Jewish Apocalyptic Literature* (2nd ed.) (Grand Rapids, MI: Eerdmans, 1988), 11-12. P. R. Davies, "Eschatology in the Book of Daniel," in *Sects and Scrolls: Essays on Qumran and Related Topics*, ed. P. R. Davies (Atlanta: Scholars Press, 1996), 23-44.

17 다니엘서 2장에 관한 연구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배정훈,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서 2장 31-45절," 「장신논단」 50 (2018. 9), 11-35. 이전 연구가 본문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과 공시적인 연구에 초점이 있다면, 이 글은 다니엘 2장에 나타난 예언적 종말론에 관한 연구를 더 진척시킨 것이다.

www.kci.go.kr

이 부서지는 것(2:34-35)이다. 첫 번째 환상은 여러 금속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다.[18] 신상을 구성하는 금속들의 순서는 가치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배열되어 있다(금-은-놋-쇠).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금-은-놋-쇠의 신상을 지탱하는 도구다. 두 번째 환상은 신상 파괴 이야기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렸다.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신상을 친 돌들만이 쌓이고 쌓여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19]

일반적으로 꿈과 해석은 일대일로 대응하지만, 이 경우 꿈과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원래 바벨론 시대의 꿈 해석이 그리스 시대에 재해석되면서, 현재의 본문에는 바벨론 시대의 해석과 그리스 시대의 해석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스(P. R. Davies)는 꿈과 해석의 불일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0] (1) 해석에 나타나는 발가락(2:41-43)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설명(2:44)이 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 꿈에서 돌이 태산이 되지만(단 2:35), 해석에서 돌은 산에서 나타난다(2:45). (3) 꿈에서, 네 금속은 점차적인 열등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해석에서는 이들이 연속적인 세계 왕국을 나타낸다. (4) 꿈에서, 네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신상은 동시에 멸망되는 반면, 해석에서 나라들은 연속적으로 파괴되었다. 데이비스는 이러한 관찰을 통해 원래 꿈에서 나타난 네 왕들은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II)과 그의 열등한 세 왕인 아멜-마르둑(Amel-Marduk), 네리글리살(Neriglissar) 그리고 나보니두스(Nabonidus)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 꿈 해석은 바벨론 시대의 해석

18 이러한 신상은 정복지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고 왕이나 왕이 섬기는 신들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19 개역개정판에서 "우상"으로 번역된 아람어 단어인 "첼렘"은 신상과 같은 단어이다.

20 Philip R. Davies, "Daniel Chapter Two,"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27 (1976): 392-401.

www.kci.go.kr

(단 2:37, 38)과 그리스 시대의 해석(단 2:39-43)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서술인 다니엘 2:44-45는 바벨론 시대와 그리스 시대 모두에 해당하는 종말론을 보여준다.

먼저, 바벨론 시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21] 1) 꿈 해석에서 첫 번째 금속인 금 머리를 느부갓네살 왕으로 해석함으로 네 왕 이야기의 시작임을 암시한다. 2) 금 머리 이후에 세 왕을 상징하는 세 금속에 대한 해석은 그리스 시대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3) 본문의 문맥은 이 꿈이 원래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킨다는 것을 시사한다.[22]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3장에서 신상의 머리만이 아니라 신상 전체를 금으로 이루어진 금 신상을 만들기에 이른다. 만약 이 계시가 네 나라의 멸망을 가리킨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 시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23] 1) 느부갓네살을 뜻하는 금 머리 이후 세 금속은 나머지 세 나라에 관한 서술이다. 두 번째 나라는 이전 나라보다 "못한 나라"이며, 세 번째 나라는 쇠가 모든 나라를 부수는 것같이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찧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네 나라는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면서 상승 또는 하강의 순서로 진행된다. 2) 넷째 나라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꿈에서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에 해당하는 해석이 2장 41-43절에서 이어진다.[24]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결합은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제국이 분열되어 한 나라는 쇠처럼 강한 반면, 다른 나라는 진흙처럼 취약

21 배정훈, "정경해석 방법으로 바라보는 다니엘 2장 31-45절," 19-20.

22 P. R. Davies, "The Eschatology in the Book of Daniel," in *Sects and Scrolls: Essays on Qumran and Related Topics* (Atlanta, Georgia: Scholars, 1996), 32-41.

23 배정훈, "정경해석 방법으로 바라보는 다니엘 2장 31-45절," 21-23.

24 L. Hartman, L. & A. A. Di Lella, *The Book of Daniel* (AB 23. Garden City, N. Y.: Doubleday, 1978), 141.

www.kci.go.kr

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나누어진 나라들이 결합을 시도하지만 어렵다.[25]

이러한 해석을 전제한다면, 본문에서 네 나라에 관한 재해석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관한 진술이(44-45절) 바벨론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벨론 시대에서 사용된 종말 서술(44절)을 그리스 시대에도 동일하게 받아들이기에, 그리스 시대에 새로운 종말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44절에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 시대만이 아니라 그리스 시대에도 적용되는 종말 서술이다. 종말이 오기 전 시대를 44절에서 "이 여러 왕들의(malkayyä 'innûn/말카야 이눈) 시대"라고 말한다. 아람어로 왕은 나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왕은 나라의 상징이요, 나라의 구현이기 때문이다.[26] 바벨론 시대에 "여러 왕들"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멸망될 때 까지의 네 왕들을 의미한다. 왕과 나라를 동의어로 본다면 그리스 시대에 "여러 왕들"은 그리스를 마지막으로 하는 네 나라, 즉 바벨론, 메대, 바사, 그리고 그리스의 네 나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종말에 관한 서술은 바벨론과 그리스 시대 해석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즉, 바벨론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이나 그리스 시대에 살던 유다 백성이나 동일하게 44절에서 나타나는 종말을 기대했다는 말이다. 이 종말은 곧 포로 후의 회복을 기다리는 예언적 종말론에 해당된다.

### 2) 다니엘 2장에 나타난 예언적 종말론: 유대백성의 회복 신학

이제 우리는 다니엘 2장의 꿈 해석에서 나타난 유대 백성의 회복 신학인 예언적 종말론을 재건해 보고자 한다. 예언적 종말론은 다니엘

---

25 H. H. Rowley, *Darius the Mede and the Four World Empires in the Book of Daniel: A Historical Study of Contemporary Theories*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Board, 1964), 94-95.

26 James A. Montgomery, *The Book of Daniel* (ICC; Edinburgh: T & T Clark, 3rd ed. 1959), 178.

www.kci.go.kr

2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 첫째로, 유대 백성의 회복 신학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왕의 신학이다(단 2:21). 하나님이 왕을 폐하시는 것은 "손 대지 아니한 돌"(단 3:34)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선택된 왕은 주어진 기간에 하나님의 대행인으로서 권세를 부여받는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대행인으로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 왕들 중의 왕"(단 2:37)[27] 이라고 부른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28]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단 2:37-38). 이 표현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의 대행인인 원-인간(primitive man) 또는 원-왕(primordial king)으로 인정하는 것이다(창 1:28; 2:19-20; 시 8:7-9; 렘 27:6; 28:14).[29]

둘째로, 44절에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학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단 2:44).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네 나라 다음에 네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세워진다는 면에서 시간적(in history)인 것이다. 이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신적 능력을 말하고 있지만, 반드시 역사의 종말은 아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선다는 표현은 반드시 묵시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역사의

27 이 칭호는 느부갓네살 왕(겔 26:7)과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스 7:12)에게 적용되었다.

28 칠십인 역을 따라 개역경은 사람, 들짐승, 공중의 새가 거주하는 피조세계 모두를 의미하는 번역을 하였다. H. Hartman, *The Book of Daniel*, 141. J. A. Montgomery, *The Book of Daniel*, 172-173.

29 A. Lacocque, *The Book of Daniel* (Atlanta, GA; John Knox Press, 1979), 50.

www.kci.go.kr

종말이나 죽음의 초월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에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곧 유대 백성이 자신들의 나라를 통해서 구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다.[30] 이미 포로기 이후에 유대 백성이 세운 지상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다는 사상이 등장하고 있다(삼상 7장, 대상 17장).[31]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유대 민족이 세우는 나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32]

셋째, 유대 백성은 포로가운데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유대 백성에게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의 미래를 전해주신다. 포로 기간은 70년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유대 백성은 바벨론 왕의 잠정적인 통치를 인정하면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기대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받은 계시에 따르면, 때가 되면 바벨론이 유대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에 의하여 멸망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나라는 다른 백성이 아니

---

30 많은 학자들이 새로 세워질 영원한 나라가 이스라엘임을 밝힌다. "예상되는 나라는 회복된 이스라엘이다." Earnest C. Lucas, *Daniel* (Apollo Old Testament. Apollos: Leicester, England, 2002), 77. "나라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에 속한 그룹일 것이다." Paul Reddit, *Danie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9), 60. "새로운 나라는 하늘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지상의 나라로서 지상과 연결된다." L. Hartman, L. & A. A. Di Lella, *The Book of Daniel*, 149-150. "저자는 하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유대 나라의 지상 통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Carol A. Newsom, *Daniel* (Louisville: Westminster, 2014), 83.

31 포로기 이전에 왕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삼하 7:16)을 약속함으로 세습과 왕위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포로기 후기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 대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대상 17:14) 가 강조된다. 하나님 나라는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넘겨진다는 진술(대상 10:14)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즉위하는 존재는 세습을 보장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의 대행인으로서 왕의 역할을 맡는 것임을 보여준다. 배정훈, "역대기에 나타나는 사울 패러다임 (역대기상 10장)," 「장신논총」 3 (2010. 1), 11-38.

32 C. L. Seow, "From Mountain to Mountain: The Reign of God in Daniel 2," Strawn and Bowen, eds. *A God So Near: Essays on Old Testament Theology in honor of Patrick D. Miller*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3), 374.

www.kci.go.kr

라 유대 백성에 의하여 상속될 것이며,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33] 유대 백성은 바벨론 멸망 후에 자신들이 주역이 되어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것을 기대하였다.

## 4. 다니엘 7-12장에 나타난 묵시적 종말론

### 1) 다니엘 7장에 나타난 묵시적 종말론

7장에 나타나는 묵시적 종말론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2장과 7장은 모두 그리스 제국의 멸망을 고대하였지만, 멸망 이후에 관하여서는 서로의 진술이 다르다. 2장에서는 회복을 기다리는 예언적 종말론을 다루면서, 그리스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고대를 예언적 종말론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7장에서는 그리스 제국의 멸망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묵시적 종말론 입장에서 서술한다. 콜린스의 정의에 따르면 다니엘 7장은 묵시문학의 장르에 속한다.[34]

다니엘 7장은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장르로서 환상과 환상 해석으로 이루어지는데, 환상과 해석은 서로 다른 시대와 사상을 반영한다.[35]

---

33 P. R. Davies, "Daniel Chapter Two," 392-402.

34 콜린스(J. J. Collins)는 묵시문학의 장르를 이렇게 정의한다. "종말론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한에서 시간적이며, 또 다른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공간적인, 초월적인 실재를 드러내면서, 계시가 저 세상의 존재에 의하여 수납자 인간에게 중재되는 설화 구조를 가진 계시 문헌의 장르." Collins, "Apocalypse: The Morphology of a Genre," 1-20.

35 7장의 환상과 환상 해석이 서로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 7장의 편집 단계를 2단계로 보는 학자들 연구에 힘입는다. 일반적으로 7장의 편집 시기는 그리스 초기, 마카비 1기, 그리고 마카비 2기로 볼 수 있는데, 그리스 초기는 페르시아를 이어서 그리스가 네 번째 나라가 된 초기이며, 마카비 1기는 안티오코스('Αντίοχος) 왕이 즉위한 직후, 그리고 마카비 2기는 안티오코스 왕의 박해가 절정에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7장의 편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네 짐승과 멸망(2-7aβ, 11b) - 알렉산더 시대, 2) 마카비 시대 첫 번째 편집(7bβ, 8, 12, 15, [16], 17, 19, 23, 24, 25aα)

www.kci.go.kr

다니엘 7장 환상은 2장 꿈 해석에서 등장하는 네 나라를 이어받아,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넷째 짐승으로 이루어지는 네 나라를 보여준다. 또한 네 나라의 멸망과 함께 찾아오는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좌환상을 동반하는 심판과 "인자 같은 이"가[36] 등장한다(단 7:9-10).[37] 이 보좌 환상에는 왕좌(=보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천사들, 그리고 심판대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이 등장한다.[38]

역사의 종말은 넷째 짐승의 심판으로 완성된다(단 7:11-12). 이 심판은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형식인 맨티시즘(manticism)으로 나타난다.[39] 다니엘이 목격한 것은 바로 하늘에서 넷째 나라인 넷째 짐승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네 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다른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때를 기다린다.[40] 이 환상을 보는 자들은 맨티시즘의 원리에 따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비록 땅에서 현재 마지막 짐승이 세력을 잡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도 작은 뿔과 함께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인자 같은

---

- 주전 175년, 168년 사이 3) 마카비 시대 두 번째 편집, 심판(9-10, 13, [14], 26a, 27), 안티오코스 언급(11a, 21-22, 25aβ, 25b), 종말론적인 구절(21, 22b), 성도와 왕국 소유(18, 27, 25aα). Martin Noth, "Zur Composition des Buches Daniel," *TSK* 98/99 (1926), 143-163. 참조하라. 배정훈, "최종본문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서," 「신학과 문화」 16 (2007), 241-266.

36 인자라는 용어에 대하여 다니엘서에 등장할 때는 원문을 살려서 "인자 같은 이"로 표기하고 다른 문헌에 나타날 때는 인자로 표기한다.

37 구약성경에서 보좌환상이 나타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왕상 22:19-23, 이사야 6장, 에스겔 1-3장, 제1에녹서 14장. 예언자들의 보좌환상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거룩의 여정: 거룩에 관한 성서적 탐구』(한국성서학연구소, 2022), 111-131.

38 단 7:10; 계 20:4, 12.

39 P. R. Davies, "Social World of Apocalyptic Writings," 251-271.

40 또 본문은 네 번째 짐승 이전에 존재하던 세 짐승의 운명에 대하여도 언급한다(12절). 세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겼지만, 정한 기간에 생명이 보존된다. 마지막 심판 때인 정한 기간까지 악한 세력들이 전멸되지 않고 위협으로 항상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www.kci.go.kr

이"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인자 같은 이"는[41]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된다. "인자 같은 이"는 인간 다니엘과 구별되는 천상의 존재로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의 섬김을 받는다.[42]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 같은 이"의[43] 정체에 관하여 하나님의 백성,[44] 천사,[45] 그리고 메시아라는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기독교는 메시아적인 해석을 선택한다. 그 근거로는 주후 1세기 문헌인 에녹의 비유에 나오는 인자가 다니엘 7장에 근거하여 메시아로 여겨진다(제1에녹 46:1-5; 48:3-7, 10; 52:4). 복음서는 다니엘 7:13-14에서 오실 자를 메시아로 해석한다(마 3:11; 8:29; 11:3; 요 1:30; 4:25). 또한 요한계시록 저자는 다니엘 7:13-14에 근거하여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적인 인물이 예수라고 이

---

41 본문에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는 문맥이 결정한다. "인자 같은 이"(케바르 에나쉬)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관사 없는 일반명사로 사용되면서, 짐승 같은(사자 같은, 표범 같은, 곰 같은)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룬다. 짐승들이 받은 권세는 잠정적이지만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42 인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다. 에녹1서에서는 인자가 땅에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등장하지만,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등장한다.

43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 같은 이"(kebar ʼénaš)라는 말은 짐승 같은(사자 같은, 표범 같은, 곰 같은)이라는 단어와 대립하여, 고유명사가 아니라 관사 없는 일반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짐승들이 받은 권세는 잠정적이지만,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권세는 영원한 것이다. "인자 같은 이"는 네 번째 짐승이 멸망되고 남은 짐승들이 권세를 빼앗겨 정한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권세를 부여받는다. 배정훈, 『다니엘』,(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152.

44 이 이론은 인자를 하나님의 백성, 즉 집단적 인물로 보는 상징적인 해석이다. 이 이론의 근거는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받고(단 7:14), 꿈의 해석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받는다(단 7:22, 27)는 서술 때문이다. J. A. Montgomery, *Daniel*, 317-24.

45 이 이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다(단 7:22, 27). 다니엘서에서 천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린다(8:13에서 두 번).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콜린스(J. J. Collins)이다. J. J. Collins, "The Son of Man and the Saints of the Most in the Book of Daniel," *JBL* 93(1974), 50-66.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304-10. L. Dequeker, "The 'Saints of the Most High' in Qumran and Daniel," *OtSt* 18 (1973): 108-187.

www.kci.go.kr

해한다(계 1:7, 13; 14:14).[46]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다니엘 7장의 예언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받아들인다. 그 예언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교회에 관한 말씀과 종말에 관한 계시를 선포한다고 믿는다.

7장의 환상 해석에서는 강조점이 네 나라의 멸망에서, 그리스의 마지막 왕인 작은 뿔의 멸망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의 보호로 옮겨진다. 작은 뿔은 네 번째 나라의 마지막 왕인 안티오코스 4세인데, 그의 특징은 사람의 눈과 큰 말을 하는 입을 갖고 있으며(단 7:8, 20, 25), 자신을 현현(顯現)한 신(Theos Epiphanes)이라고 부름으로 신성모독을 자행한다는 것이다.[47] 작은 뿔이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승리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때가 되면 안티오코스 4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단 7:18; 7:21-22; 7:26).

### 2) 다니엘 12장에 나타나는 묵시적 종말

다니엘서 12장에서 드러난 묵시적 종말론의 핵심은 죽음의 초월(Transcendence of Death)이다. 이는 예언적 종말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상적 회복에 천착했던 것과는 달리, 개인의 구원을 천상적 영역으로의 승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48]

다니엘 12장은 죽음의 초월만이 아니라, 안티오코스의 죽음로 시작되어 개인의 부활로 끝나는 일련의 역사의 종말 과정을 보여준다. 종

---

46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4장 14절은 다니엘 7장 13절의 칠십인 역과 동일하게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47 C. L. Seow, *Daniel* (Louisville, 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105-106.

48 개인 부활 사상은 민족적인 부활(사 26:19)에서 발전된 사상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욥 14:12; 렘 51:39, 57; 암 5:2).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돌아온 이야기들이 존재했고(왕하 4:18-35; 왕하 13:20-21; 호 6:2) 에스겔은 민족의 부활 가능성을 말했다(겔 37:1-14).

www.kci.go.kr

말은 반역자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온다(1절, "그때에"). 역사의 종말에 이스라엘의 수호신 천사장 미가엘이 치를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전에 마지막으로 치러야 할 수호 천사와의 싸움이다.[49] 이어서 성도에게 환란이 닥치고, 하나님은 이 환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많은 사람은[50] "다" 깨어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경험할 자로 나누일 것이다.[51] 여기에서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천상적 영역으로 고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구절에 나타난 부활은 지상적 삶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다. 다니엘서 저자는 고대 근동의 신화적 세계관, 즉 천상의 존재들 사이의 갈등이 지상의 사건을 결정한다는 '이층적 우주관(two-storey universe)'을 수용하면서도, 의인들이 천상의 군대(angelic host)와 결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다. 이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가 민족의 존속을 넘어 개인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상적 전환점을 보여준다.[52]

---

49 10장에서 그는 바사군(페르시아군)과 전투를 치를 것이고, 헬라와의 싸움을 남겨 놓았다(단 10:20), 헬라군과의 전쟁 이후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데, 남은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벌이는 전쟁으로 1,260일(계 12:6)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계 12:14)에 일어난다(계 12:7-9).

50 종말에 깨어나는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 Joyce G. Baldwin, *Daniel*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78), 204.

51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진다. 구원받는 자는 환란 중 믿음을 지킨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하늘나라 시민 자격을 얻는다(출 32:33; 시 69:28; 말 3:16; 눅 10:20; 계 3:5; 20:12).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계 20:15).

52 J. J. Collins, "Apocalyptic Eschatology as the Transcendence of Death," *CBQ* 36 (1975), 33.

www.kci.go.kr

이어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묘사한다. 여기서 '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성서적 전통(삿 5:20)과 다니엘서 자체의 문맥(8:10)에서 확인되듯 '천상의 군대(angelic host)'를 지칭하는 것이다. 저자는 의인들이 부활을 통해 천사들과 동등한 존재로 변화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지상적 삶과 천상적 삶이라는 두 영역이 최종적으로 결합됨을 의미한다.[53] 이러한 고양의 약속은 안티오코스 박해 당시 신앙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에게 필수적인 신원(伸冤)이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며, 오히려 더 높고 영속적인 생명의 형태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즉, 묵시적 종말론에서 죽음의 초월은 물리적 죽음이 의인의 존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절대적 희망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사상은 제2성전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사상이다. 다니엘서에서 제시된 '천상적 존재로의 승격' 사상은 동시대 및 후대의 묵시 문학에서도 나타난다. 의인의 운명이 천사적인 존재와 연합하여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고"(제1에녹서 104:2), "하늘의 군대와 동료가 될 것"(제1에녹서 104:6)이라고 말한다. 또한 의인의 거처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제1에녹서 39:5). 의인은 미래에 죽음을 초월하며(희년서 23:31), 이스라엘의 별들의 위치로 승격된다(모세 승천기 10:9). 이들은 천사들과의 현재적 교제를 통해 이미 죽음을 초월했다고 믿었기에, 물리적 부활에 대한 교리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졌다.[54]

이와 같이 묵시문학에서 의인들은 죽음 이후에 단순히 소멸되지 않고, 죽음을 통해 초월적 차원으로 진입한다고 이해한다. 다니엘서 12

53 위의 책, 34.

54 위의 책, 34-35.

www.kci.go.kr

장 2-3절은 이러한 묵시적 종말론의 핵심인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적 고양을 보여준다. 죽음은 더 이상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출입구이자 천상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다. 묵시적 종말론에서 죽음의 초월은 역사적 재난 속에서 의인이 누릴 '궁극적 희망', 현실을 넘어선 '하늘 생명', 그리고 시련 속 믿음의 의미와 현재적 신앙 체험의 근거가 되는 핵심 개념이다.[55]

## 5.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

다니엘서에서 종말론은 2장의 예언적 종말론에서 7장과 12장의 묵시적 종말론으로 발전한다. 먼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타난 종말론의 발전은 다음과 같다.

표 1.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타난 종말론의 발전

| 본문 | 주요 대상 | 종말론 |
|---|---|---|
| 다니엘 2 장에서의 꿈 해석 1 | 바벨론 제국 (네 왕) | 예언적 종말론 |
| 다니엘 2 장에서의 꿈 해석 2 | 그리스 제국 (네 나라) | 예언적 종말론 |
| 다니엘 7장에서의 환상 | 네 나라와 인자같은 이 | 묵시적 종말론 |
| 다니엘 7장에서의 환상 해석 | 안티오코스 4세와 성도 | 묵시적 종말론 |

다니엘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타난 종말 계시는 어느 한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해석하

55 J. J. Collins, "From Prophecy to Apocalypticism," in *The Continuum History of Apocalypticism*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03). 64-88.

www.kci.go.kr

는 계시의 역할을 한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 이 꿈이 가진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 환상은 종말을 위한 계시로서 바벨론 시대를 거쳐 그리스와 로마 시대 그리고 기독교 시대에 이르기까지 종말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었다. 바벨론의 통치 아래 사는 유대 백성들은 이 환상을 그들에 맞게 해석하였다. 2장의 꿈 해석에는 바벨론 이후의 네 왕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흔적이 담겨 있다.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2장과 7장 모두에 나타난다. 다니엘 7장의 종말에 관한 견해는 두 단계로 편집되었다. 첫 단계는 그리스 제국의 초기에 2장과 연결하여 네 나라의 마지막 제국인 그리스의 멸망을 강조하고, 둘째 단계는, 안티오코스 4세 시대로서 그리스의 마지막 왕으로 예언된 안티오코스 왕의 멸망을 강조한다. 네 나라의 멸망은 2장의 해석과 7장의 환상에서 같이 나타나지만, 2장에서는 역사 안에서의 회복을 꿈꾸는 예언적 종말론이 강조되고, 7장에서는 역사의 종말을 동반하는 묵시적 종말론이 강조된다.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서술도 서로 다르다. 2장에서는 바벨론 멸망 이후와 그리스의 멸망 이후에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단 2:44). 네 왕 또는 네 번째 나라 이후에 세워지는 한 나라는 다른 백성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 의한 나라를 암시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예언도 역사적 종말을 가리키는 묵시적 종말이라기보다는 종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나라 회복을 기다리는 예언적 종말이라고 볼 수 있다.

7장 환상에서는 종말론이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2장의 꿈에서와 같이 네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의 멸망(단 7:11-12), 보좌환상을 동반한 심판 장면(단 7:9-10), 그리고 심판 이후에 "인자같은 이"가 등장하여 나라를 받아 통치하게 된다(단 7:13-14). 7장의 환상 해석에서는 네 나라의 마지막 왕인 작은 뿔(안티오코스 4세)의 멸망이 강조되고(단 7:23-26),

www.kci.go.kr

"인자같은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로 바뀐다(단 7:21-22, 27).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안티오코스의 종말과 함께 시작되는 역사의 종말을 보여준다: 개인의 부활, 영생과 영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56]

## 6. 결론

이 글은 최근에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의 유사점보다는 차이를 강조하는 연구 방법을 다니엘서에 적용한 연구이다. 2장에서 최초의 종말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제시되지만, 종말을 향한 계시가 되어, 바벨론 시대를 거쳐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 나아가 기독교 시대에 이르기까지 종말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2장의 꿈 해석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고, 그리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2장과 7장 모두에 나타난다. 2장의 꿈 해석에서 멸망의 대상은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제시되지만 점차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라는 네 나라로 확장된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서 2장의 종말론은 묵시적 종말론이라기 보다는 바벨론이나 네 나라의 멸망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유대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회복 종말론에 해당한다. 7장과 12장은 역사의 종말로 시작된 죽음의 초월을 다룬다는 면에서 묵시적 종말을 드러낸다. 7장의 환상에서는 네 나라의 멸망을 강조하지만, 그 해석에서는 그리스의 멸망보다는 마지막 왕인 안

56 7-12장의 환상은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 기간에 쓰여졌으며, 현재의 순서대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8장은 7장을 전제하며, 9장은 '타미드 희생'의 중단을 언급하고, 10-12장은 이전 환상들의 요소들을 전제하고 논평한다. 12장은 종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다양한 계산을 통해 보충 자료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부 학자들은 7장을 환상이 아닌 이야기에 속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야기의 편집과 환상의 작성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거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Philip R. Davies, "Daniel Chapter Two," 392-401.

www.kci.go.kr

티오코스 4세의 멸망에 초점을 둔다. 7장과 12장은 각기 다른 종말론적 전망을 제시한다. 7장에서는 네 나라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 "인자 같은 이"의 등장이 중심을 이루는 반면, 12장에서는 개인의 부활, 영생과 영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언적 종말론은 점차 묵시적 종말론으로 다음과 같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다니엘 2장, 7장, 12장에서 종말론의 발전

| 요소 | 예언적 종말론 | 묵시적 종말론 | |
|---|---|---|---|
| | 다니엘 2장 | 다니엘 7장 | 다니엘 12장 |
| 시간 범위 | 역사 내 | 역사 종말 | 역사 초월 |
| 구원 주체 | 하나님/돌 | 인자/성도 | 천사장 미가엘 |
| 구원 대상 | 집단 (민족) | 성도/개인 | 개인 (의인/악인) |
| 구원방식 | 왕국 회복 | 하나님 나라 통치권 | 부활과 영생 |
| 심판 | 제국 멸망 | 보좌 심판 | 개인별 심판 |
| 죽음 초월 | 없음 | 암시 | 명시적 |

## 참고문헌


배정훈.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_____.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서 2장 31-45절." 「장신논단」 50 (2018. 9), 11-35.

_____. 『다니엘』.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_____. "역대기에 나타나는 사울 패러다임 (역대기상 10장)." 「장신논총」 3 (2010. 1), 11-38.

_____. "최종본문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서." 「신학과 문화」 16 (2007), 241-266.


www.kci.go.kr

이윤경. "4Q지침서(4Q415-418):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종말론적 지혜." 「구약논단」 30권 (2024), 209-239.

_____. "탈식민 비평으로 읽는 다니엘서." 「구약논단」 31권 (2025), 342-371.

홍성혁. "요엘 4장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 야훼의 시온 통치를 통한 새 세상 도래 부각." 「구약논단」 20권 (2014), 186-216.

Baldwin, Joyce G. *Daniel*.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78.

Charles, R. H. *The Doctrine of a Future Life in Israel, Judaism and Christianity*. London: A. & C. Black, 1913.

Carroll, R. P. *When Prophecy Failed: Cognitive Dissonance in the Prophetic Traditions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Collins, John J. *The Apocalyptic Imagination: An Introduction to Jewish Apocalyptic Literature*. 2nd ed. Grand Rapids, MI: Eerdmans, 1988.

_____. "The Son of Man and the Saints of the Most in the Book of Daniel." *JBL* 93(1974), 50-66.

_____. "Apocalypse: The Morphology of a Genre." *Semeia* 14 (1979): 1-20.

_____.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_____. "Apocalyptic Eschatology as the Transcendence of Death." *CBQ* 36 (1975), 21-43.

_____. "From Prophecy to Apocalypticism." Pages 64-88 in *The Continuum History of Apocalypticism*.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03.

Cook, Stephen L. *Prophecy and Apocalypticism: The Postexilic Sett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Davies, Philip R. "Daniel Chapter Two."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27 (1976): 392-401.

_____. "Social World of Apocalyptic Writings." *The World of Ancient Israel: Sociological, Anthropolog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 ed. R. E. Clement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_____. "Eschatology in the Book of Daniel." Pages 23-44 in *Sects and Scrolls: Essays on Qumran and Related Topics*, ed. P. R. Davies. Atlanta: Scholars Press, 1996.

Dequeker, L. "The 'Saints of the Most High' in Qumran and Daniel." *OtSt* 18 (1973): 108-187.

Finitsis, Antonios. *Visions and Eschatology: a Socio-Historical Analysis of Zechariah 1-6*. New York : t&t Clark, c2011.

www.kci.go.kr

Hartman, L. & Di Lella, A. A. *The Book of Daniel*. AB 23. Garden City, N. Y.: Doubleday, 1978.

Hanson, Paul D. "Apocalyptic Literature." in *The Hebrew Bible and Its Modern Interpreters*. eds. D. A. Knight and G. M. Tucker. Philadelphia: Fortress, 1985.

_____. "Prolegomena to the Study of Jewish Apocalyptic." In *Magnalia Dei: The Mighty Acts of God*, eds. F. M. Cross, W. Lemke, and P. D. Miller, Jr. Garden City, N.Y.: Doubleday, 1976.

_____. *The Dawn of Apocalyp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Lacocque, Andre. *The Book of Daniel*. Trans. D. Pellauer. Atlanta: John Knox, 1979.

Lucas, Earnest C. *Daniel*. Apollo Old Testament. Leicester, England, Apollos, 2002.

Montgomery. J. A. *Daniel*. ICC. New York: Edinburgh, 1927.

Newsom, Carol A. *Daniel*. Louisville: Westminster, 2014.

Noth, Martin. "Zur Composition des Buches Daniel." *TSK* 98/99 (1926), 143-163.

Plöger, Otto. *Theocracy and Eschatology*. Richmond: John Knox, 1968.

Redditt, Paul L. "Israel's Shepherds: Hope and Pessimism in Zechariah 9-14," *CBQ* 51 (1989): 631-642.

_____. *Danie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9.

Rowley, H. H. *The Relevance of Apocalyptic: A Study of Christian and Jewish Apocalypse from Daniel to Revelation* (London: Lutterworth Press, 1964)

_____. *Darius the Mede and the Four World Empires in the Book of Daniel: A Historical Study of Contemporary Theories*.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Board, 1964.

Seow, C. L. *Daniel*. Louisville, 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_____. "From Mountain to Mountain: The Reign of God in Daniel 2." Strawn and Bowen, eds. *A God So Near: Essays on Old Testament Theology in honor of Patrick D. Miller*. Winona Lake, Ind.: Eisenbrauns, c2003.

Smith, Ralph L.『구약신학: 그 역사, 방법론, 메시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5.

검색어

예언적 종말론, 묵시적 종말론, 원-묵시 문헌, 죽음의 초월, 인자같은 이

www.kci.go.kr

[ ABSTRACT ]

# Prophetic Eschatology and Apocalyptic Eschatology in the Book of Daniel

Chong-Hun Pa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distinction between prophetic eschatology and apocalyptic eschatology as manifested in the book of Daniel. Contemporary scholarship in Old Testament studies identifies three primary types of eschatology: pre-exilic prophetic eschatology, post-exilic prophetic eschatology, and apocalyptic eschatology. While earlier research tended to emphasize the similarities between prophetic and apocalyptic eschatology, recent scholarship has highlighted the divergence between proto-apocalyptic prophetic eschatology and apocalyptic eschatology. This research applies these recent scholarly trends to an examination of the eschatology found in the book of Daniel.

Methodologically,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y of research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phecy and apocalypse, followed by a detailed textual analysis of Daniel 2 and Daniel 7-12. The study examines how scholars such as Plöger, Hanson, and Cook have understood the development from prophecy to apocalyptic literature, and adopts John J. Collins's criterion of the "transcendence of death" as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apocalyptic eschatology.

The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eschatology in Daniel 2 differs fundamentally from that in Daniel 7-12. Daniel 2 reflects a prophetic

www.kci.go.kr

eschatology that anticipates restoration within history. Both the original Babylonian-era interpretation and the later Greek-era reinterpretation envision an earthly Kingdom of God established by the Jewish people following the fall of gentile empires. This represents a restorative eschatology grounded in historical continuity.

In contrast, Daniel 7-12 presents an apocalyptic eschatology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death and history. These chapters reveal the end of history accompanied by cosmic judgment, individual resurrection, heavenly immortality, and eternal life. This apocalyptic vision includes throne visions, angelic mediation, and the revelation of a transcendent reality beyond the present world.

This study contributes to biblical scholarship by demonstrating the theological development from prophetic to apocalyptic eschatology within a single biblical book, thereby clarifying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key words

prophetic eschatology, apocalyptic eschatology, proto-apocalyptic eschatology, transcendence of death, One like the Son of Man

투고일 : 2026년 01월 31일
심사일 : 2026년 03월 04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03월 07일

www.kci.go.kr